

세계 석학 강연 안방서 본다

유발 하라리·리처드 도킨스 등 EBS, 30일부터 '위대한 수업...' 우리사회에 던지는 애정어린 조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무료 제공

'인류의 지혜를 공유한다.'

'총.균.쇠'의 재래드 다이아몬드,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

시대를 선도하는 뛰어난 통찰로 세계 지성계를 이끌고 있는 석학들의 강연을 통해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는 기회가 마련된다. 빈부 격차, 첨예하게 대립하는 젠더문제, 전 지구를 위협에 빠뜨리는 환경문제, 세계 기술전쟁 속 한국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강연은 눈길을 끈다. <표 참조>

EBS는 오는 30일(매주 월-금요일 밤 11시35분 EBS1)부터 글로벌 석학들의 강연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선보인다. 제작진은 전 세계 석학들을 찾아 강연 현장을 촬영하고 있으며 모든 강연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무료 제공된다.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EBS가 공동 기획한 이번 강연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의 하나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계층간 지식 격차가 심화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출연진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유발 하라리(역사), 마이클 샌델(정치철학), 주디스 버틀러(젠더), 에스테르 뒤플로(경제), 조지프 나이(정치), 리처드 도킨스(생물), 폴 너스(과학), 로버트 와인버그(의학), 존 헤네시(IT), 요슈아 벤지오(IT), 다니엘 바렌보임(음악) 등이다. '생각의 지도'의 리처드 니스벳처럼 국내 출판 시장에서 인기를 모은 저자들인 이들의 강의를 직접 듣는 기회가, 한국의 상황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도 들려줄



유발 하라리

리처드 도킨스

마이클 샌델

■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강연 목록

강연자	강연 주제
조지프 나이	누가 리더인가
폴 크루그먼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리처드 도킨스	도킨스, 나의 과학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댄 애리얼리	돈의 심리학
리처드 니스벳	생각의 지도
피터 싱어	동물 해방
로버트 와인버그	세포의 반란, 암이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공정이란 무엇인가
스티븐 핑커	세계는 악화되는가
비노드 아가왈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미래
폴 너스	생명이란 무엇인가
유발 하라리	21세기 인류의 도전과 미래
존 헤네시	실리콘밸리의 탄생
조셉 르두	공포란 무엇인가
대런 애쓰모글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것으로 기대된다.

첫 테이프를 끊는 강연은 '소프트 파워' 이론의 창시자로 꼽히는 조지프 나이의 '누가 리더인가'다. 이어 9월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도킨스 나의 과학',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댄 애리얼리의 '돈의 심리학'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또 최근 '정의는 무엇인가'에 이어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다시 한번 국내 서점가를 장악하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풀리처상을 수상한 '빈 서판'의 저자 스티븐 핑커의 '세계는 악화되는가', 유발 하라리의 '21세기 인류의 도전과 미래',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 로버트 와인버그의 '세포의 반란, 암이란 무엇인가' 등이 대 기중이다.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EBS방송 후에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무료 제공한다. EBS에서는 오는 12월 글로벌 OTT 플랫폼(www.thegreatminds.com)을 열 어 석학 강연 콘텐츠를 6개 언어로 전 세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금관앙상블 '브래싱' 27일 광주북구문화센터

해외여행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 19로 하늘길이 막힌 요즘, 멕시코, 하와이, 아르헨티나 등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며 그 지역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금관앙상블 브래싱의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I'이 27일 오후 7시30분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지역 출신 연주자들이 모여 지난 2019년 '브라스인 광주'로 창단해 '브래싱'으로 공식 명칭을 정하고 활동중인 브래싱은 금관악기 연주자 9명으로 구성된 연주 단체다. 지금까지 광주FINA수영대회 공연을 비롯해 '작은 음악회', '베란다 콘서트',

'예술꽃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나왔다.

가이드의 해설과 함께 선보이는 이번 공연에서는 조지 거슈인 '포기와베스' 발레곡, 아르방 '베니스의 사육제'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피아졸라 '자유와 탱고-망각', 뉴질랜드 민요 '연가', 하와이 민요 '진주조개잡이' 등을 들려준다.

무대에는 트럼펫 추선호·오창훈·하민중·홍연경, 호른 이정현, 트럼본 석수정·김윤정·김현우, 튜바 심재영 등이 오르며 광주예술고 3학년 양지원양이 트럼펫 협연자로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2부작으로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II'는 오는 10월 9일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린다. 공연에서는 러시아, 헝가리, 스페인 등의 곡들을 들려준다. 문의 010-2910-660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금관앙상블 브래싱의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I'이 27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지역예술인 복지지원 실태조사

광주문화재단(대표 이사 황풍년)은 예술인 복지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2021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로 '광주예술인조사_당신은 예술인입니까?'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광주시에 거주 혹은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전문예술인을 비롯해 장애 예술인과 예비예술인까지 포함됐다. 실태조사는 2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예술인 1000여명 현황조사와 의견을 청취하는 '광주예술인 라운드테이블'에 초점을 맞췄다.

현황조사는 10월까지 '광주예술인조사_당신은

예술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예술인 1000여명 현황을 모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 지원사업 정보와 복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 조사는 9월 말부터 진행된다.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이뤄지며 활동분야, 노동환경, 경력관리를 포함해 성폭력·성희롱 관련 사항, 불공정행위 등 권리보호까지 포함된다. 이후 12월 정책 발굴 토론회를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572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서구문화원, '신비한 예술학교' 하반기 프로그램 진행

광주 서구문화원은 오는 30일부터 '신비한 예술학교' 하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예술강사 기획사업으로 광주 문화자원을 예술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프로젝트형 프로그램과 공연형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광주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가(단체)가 찾아가 예술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모두 18개 사업에 6800만여원이 투입된다.

하반기에는 송의과학고의 '틴틴 광주 LAB' 등 4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하남중앙초의 '전통놀이극 팔죽할멈과 흥랑이' 등 4개의 공연형 프로그램이 예술가들의 지도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 진행된 프로그램은 윤림중의 '광주 극장 속에 공감찾기' 등 2개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과 봉선초의 '일찌구 노래하고! 질씨구 춤추고!' 등 4개의 공연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팬데믹 시대 예술의 본질을 아는 것은 행복한 일

정창재 전 광주문화예술회관장 '국민 행복과...' 펴내

정창재 전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이 팬데믹 시대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찾아보는 책 '국민 행복과 예술의 본질을 생각한다'를 펴냈다.

저자는 '인류문화는 고전으로 이어져왔다'며 현대고대 그리스의 교육 철학과 예술 교육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은퇴 이후에도 문화예술현장을 즐겨 찾은 그는 국내외에서 직접 관람한 공연·전시와 풍부한 문화행경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해



야 할 예술과 향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신문에 연재하던 다양한 주제의 문화칼럼 '문화의 힘'을 묶은 책은 '정신 세계의 백신, 예술의 본질', '예술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정신 세계의 백신, 고전에 있다' 등 4개 카테고리 나뉜 이야기를 전개한다. 책 말미에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엘렉트라'와 연출가 한태숙이 재해석한 '엘렉트라'를 비교한 글도 실었다.

저자는 팬데믹 시대 정신세계의 카타르시스(정

화)를 위해 예술이 중요하고 그 본질, 휴머니즘을 아는 것은 더욱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각자 타고난 적응력의 부족과 과학으로 축적된 물질문명간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라며 조기예술교육 등을 촉구한다.

이번 책은 저자가 설립한 도서출판 '사랑채'의 첫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문학, 건축,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행된 그리스의 예술 교육에 관심이 많다. 그리스와 유럽 6개국 현장 탐방과 각종 자료, 책을 통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저자는 3부작 '그 곳에 가고 싶었다, 그리스와 유럽 예술현장'을 차기작으로 준비중이다. 지금까지 펴낸 책으로는 '공연장에서 문화의 길을 묻다', '21세기 문화예술이 돈되네' 등이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